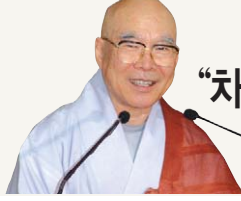


“매순간 입제의 오역죄 지어라”

4 중정·방장 동안거 결제법어



“차별심 버리면 행복해”

13 설법전-고우 스님



“할구 깨쳐야 공부 돼”

14 선지사-원각 스님



오바마 美 당선 불자 ‘후광’

7 해외불교



무자년 동안거 입제를 하루 앞둔 11월 11일,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맨 위)이 한국전쟁 때 소실됐던 금강선원을 복원해 10월 18일 개원한 만월선원에 방부 들이러 온 운수납자들을 맞이하고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겨울보다 추운 경제한파, 세상살이 힘들지만... ‘안살림’ 챙겨 ‘봄꽃’ 피우자

날씨가 춥다. 온도가 눈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기도 폭락하고, 기업 실적과 가계 형편도 줄다 못해 삶의 의욕도 메달라 가는 냉혹한 겨울 앞에 서있다.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이들은 목숨마저 끊는 잔인한 시절이다.

2008년 원단(元旦)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품었던 꿈을 언제 접었던가? 이제는 한 해를 마감할 시점이나 경제공황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들이 숨 한번 돌릴 여유조차 갖기 힘들게 만든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 군상은 가지가지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 하고, 개인은 쓸쓸이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 생활에 잘못은 없는지 돌아본다. 두 가지 유형에 핵심은 하나다. 외부에서 해결하다 안 되면 내부에서 해법 찾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생존’을 화두로 살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화두인 줄 알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은 ‘잘’과 ‘잘못’의 분별심을 만들고 고통을 낳았다. 냉혹한 현실 속에 너도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도 많거

니와 아는 사람도 실천하기 어렵다. 바람에 필러이는 깃발을 두고 깃발이 움직이지는지(幡動), 바람이 움직이는지(風動)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에게 해능 대사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心動)이라 한 일화는 유명하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돌리라는 간곡한 당부였다.

이런 가운데 불기 2552년 11월 12일(음력 10월 15일) 동안거 입제일을 맞아 전국 100여 개 선원 2200여 수행자들과 도심 시민선량 재가자 등 사부대중이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종월 선사의 “만약 하나의 티끌이 일어서면 국가가 흥성하지만 그 하나가 일어서지 못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말에 설두 스님이 주장자를 치켜들고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 있는 남자가 여기 있는가?”라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경제 위기와 대북관계 경색 등 나라 안팎이 여수선한 때여서일까? 동안거 결제 법회에 모인 대중들의 당당한 풍모는 풍월일진(風穴一塵) 공안이 현현한 모습이다.

한암·탄허 스님의 선포를 이은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도 입제식

을 봉행하고, 동안거 시작을 알렸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금강선원을 복원해 탄허 스님이 주석했던 방산골 앞에 조성한 만월선원에 이날 첫 방부를 들었다.

방부 들인 운수납자는 만월선원에 17명, 오대산 산중 사암에 방부 들인 대중은 177명이다. 출가자는 비구 77명, 비구니 34명으로 111명, 재가 종무원 66명도 2009년 2월 9일 해제일까지 함께 정진한다. 입제법회에 동참한 월정사, 상원사, 육수암, 지장암 등 오대산 일대 산중 사암 수좌 120여 명의 눈초리는 예사롭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전도몽상(顛倒夢想)을 당장이라도 꿰뚫을 태세였다.

입제법회 법문은 각 스님(총량 선원 선취)이 낭독한 한암 스님의 법문, ‘무설무문(無說無聞)이 진실진문(眞說眞聞)’으로 대신됐다. “말 없음이 참 법문을 듣는 소식”이라는 법문을 읽는 한암 스님이 산 수좌들에게 법문하는 아이러니처럼 깨침은 생멸을 초월한 것임을 반증한다.

주지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치열한 산중의 정진 열기가 끝없는 법향을 피워 경제공황, 정신적 공황으로 고통 겪는 중생의 정신을 향기롭

게 만들자”며 “해제 때 크게 웃는 소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4조 도산 스님 전기에는 도적들에 79일간 포위된 길주성에 우물마저 모두 말라버려 성안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됐을 때 정진으로 극복한 일화가 있다. 도산 스님은 성 밖에서 소식을 접하고 성안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마하반야바라밀”을 독송시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성벽 위를 본 도적들은 신병(神兵)을 보고 도주했다. 말라있던 성안 우물도 물이 솟아 넘쳤다는 이야기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침체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성밖 도적과 성안 우물이 말라 고통받던 길주성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수행정진에 매진하는 길뿐이다. 세상이 추위질수록 각자의 안 살림을 철저히 단속하자. 봄꽃은 피고야 말 것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호국불교는 공동선 구현에 힘쓰는 것”

월운 스님, ‘우리 민족 한마음 포럼’ 서기조강연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카톨릭 등 7대 종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호국불교를 강조한 글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가 11월 13~15일 제주 KAL호텔에서 개최한 제74차 기자포럼 ‘국민통합과 대화화합을 위한 우리 민족 한마음 포럼’에서 월운 스님(동국여경원장)은 ‘민족수난기의 호국불교’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스님은 “불교는 발생동기부터가

평화로운 상황에서 출발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라며 호국불교의 기원을 <기세경>의 설화로 설명했다. 인류 최초의 왕 삼만다(三滿多, Samanta) 이야기는 왕과 부다가 같은 뿌리이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스님은 “붓다와 왕이 같던 것은 어머니의 인자함과 아버지의 엄함이 있는 것처럼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공권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고귀한 식견을 지닌 정신지도자들이 나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능력 있는 이는 활동의 폭을 넓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크게 힘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자기 힘을 보태는 관습을 익혀둬야 할 것”이라며 “무능력한 이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한 방법일 것”이라고 세간의 상황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월운 스님은 “호국불교도 이와 같다”며 “국리민복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견됐을 때 공동선의 구현을 위해 역량에 따라 대처함을 수행의 한 덕목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첫시작하는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소년의 흥미자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야생 수제 구경구뽕잎차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술 향산화 권역 100%”
청다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현대불교신문 독자분께 한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할인가로 드립니다.

- ◆원리: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 ◆장점: 전기가 들지않는다.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다.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지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정원등(1) 230cm 60*400 → 360,000

태양광 정원등(2) 150cm 15*400 → 110,000

태양광 정원등(3) 100cm 15*400 → 100,000

태양광 정원등(4) 103cm 20*400 → 150,000

태양광 잔디등(小)

50cm 10*400 → 70,000

17cm 15*400 → 33,000

백색, 변색 15*400 → 33,000

14×14×15cm 15*400 → 33,000

태양광 잔디등(大)

88cm 30*400 → 56,000

53cm 15*400 → 33,000

53cm 15*400 → 33,000

49cm 15*400 → 28,000

문주 및 데크등

태양광 매립등

□50φ / 폴리

□20φ / 스텐+ 알루미늄+유리

□180φ / 스텐+ 알루미늄+유리

태양광 벽등

70,000

56,000

33,000

스포츠라이트

조형물, 수목투광 10*400 → 110,000

코스모스환보 본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대우테크노 A동 402호 TEL 032)670-8998, 8268 / FAX 032)670-8368
 http://www.momopopo.com 계좌번호 : 농협 216014-51-257956 (예금주: 오승렬)